



섬 전시관 관람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이 8일 목포시 삼학도에서 열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윤영일 국회의원이 섬 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시,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과다 지원 논란

500억 법인 투자 이어 민간사업자에 보조금까지 시의회 등 적정성 시비...집행부 "조례 근거 지원"

광주시가 500억원 규모로 투자하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민간사업자의 투자 보조금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다양한 투자자가 자본금을 내 만들어지는 합작법인의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대규모 지원 계획을 세웠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500억 원대의 투자유치 보조

금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시가 시의회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보고한 것은 산업은행과 일부 투자 기업이 안전장치로 보조금 지원 약속을 미리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투자유치 보조금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의원의 동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유치 보조금은 토지 구입비(1,400억원)와 공장 건설비(3,000억원)

등을 포함한 사업비 5,000억원의 10%인 5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 공장 가동 이후 2년 안에 투자유치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내부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공장 건설비 등 투자금의 최대 1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는 투자유치 보조금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은 지난 1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완성차공장 투자협약을 맺을 당시 협약서에 포함됐다. 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 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실제 투자규모의 10%에 상응하는 보조금과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을 약속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광주시가 현대 자동차와 투자협약을 맺을 당시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뒤늦게 공개했다"며 "광주시는 시민 예산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만큼 각종 예산집행에 명확한 개념정리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예산을 투입하지만 완성차공장에 대한 투자 행위자는 합작법인인 만큼 조례에 근거해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보조금은 최종 투자액에 대한 실사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한전공대 초기설립자금 600억 최종 확정

한국전력이 이사회를 개최해 한전공대 초기설립 자금으로 600억원을 배정하기로 하는 등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가결함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전은 8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한전공대 설립 및 법인 출연안'을 가결했다.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이 이사회를 통과 하고 초기설립자금 600억원이 확정

되면서 대학설립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본계획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한전은 기본계획을 곧바로 발표하고 학교 법인 설립, 도시계획 변경, 캠퍼스 준공, 대학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게 된다. /서울=강병운 기자

이사회에 앞서 한전은 지난 7월 26일 내외부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전공대법인설립추진위에서 대학설립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 꿈꿔”

의망을 나누는 이름다운 동행

<7> 한중훈 동광주새마을금고 이사장

“평소 봉사라는 단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부담스러워 하신다. 세상 사는 이치가 더불어 사는 사회고 함께 하는 공동체가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한중훈(70) 동광주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기억하는 주변 사람들은 한결 같이 이 같은 말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목격의식에 사로잡혀 진정성이 떨어지고 가식에 찌든 ‘영혼없는 봉사활동’은 자신도 피곤하지만, 받아 들인 입장에서 그다지 편치 않다는 게 한 이사장의 평소 지론이다. 한 이사장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서 유명 인사로 통한다. 마을금고 이사장이란 목직환 타이틀도 무게감을 주지



무연고자 장례식 상주역할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은 공동체 삶에서 최소한의 도리

만, 이 구역에선 산타와 같은 공정 미지가 굳게 각인돼 있다. 주변 이웃들이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한 이사장을 찾아 해결 방안을 얻어 낸다. 가령, 산수동내에 독거노인 등 무연고자가 운명을 달리할 경우 가장 먼저 발 벗고 자기 일처럼 처리하는 사람이 한 이사장이다. 장례 치를 관계자가 없고, 비용 등이 전무한 상황에 한 이사장이 앞장서 주변 사람을 동원해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한다. 2년 전 관내에서 고독사한 독거노인 사례 등을 포함해 6-7회 가장 쉽지 않은 선행을 보이지 않게 배풀었다. 한 이사장은 성공한 지역금융 경영인으로도 존경 받는 인물이다. 지난 2000년 자산 200억원대 연체를 무려 30-40%인 동광주새마을금고를, 현재 자산 2,000억원 연체를 0.2%까지 낮춰 탄탄한 지역금융고로 키워낸 장본인이다. 20여년간 경영난이 극심한 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돼 10여

년 동안 무급 생활을 하면서 원리원칙대로 여신업무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철저한 정도 경영을 앞세워 10여년 만에 흑자 경영으로 돌려 세운 것이다. 올해 4월엔 한 이사장의 공적에 힘입어 광주·전남북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대회 2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마을금고에선 수익을 내면 지역민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철학으로 다채로운 사회환원 활동도 이뤄지고 있다. 매년 5월 가정의달과 연말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숙곳과 소화기 등을 전달하고, 금고회원과 임직원들이 일 년 동안 밥 지을 때마다 한 줍씩 모은 쌀 400여포대를 20여년째 구정을 통해 기탁하고 있다. 한 이사장은 “앞으로도 이웃사랑의 옛 전통을 이어 나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따뜻한 마을 만들기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M 전남매일 학교폭력예방 연중캠페인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자기 빛깔로 사랑스런 아이 향꾸네 정을 나누는 권 있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배려할 줄 아는 민주시민, 전남학생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이 응원합니다. “너 참 권 있다.”

너 참 권 있다

권 있다 : 불수록 정이 들고 매력적인 인물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  
향꾸네 : '함께'의 전라도 방언